

메인 기획 Main Propo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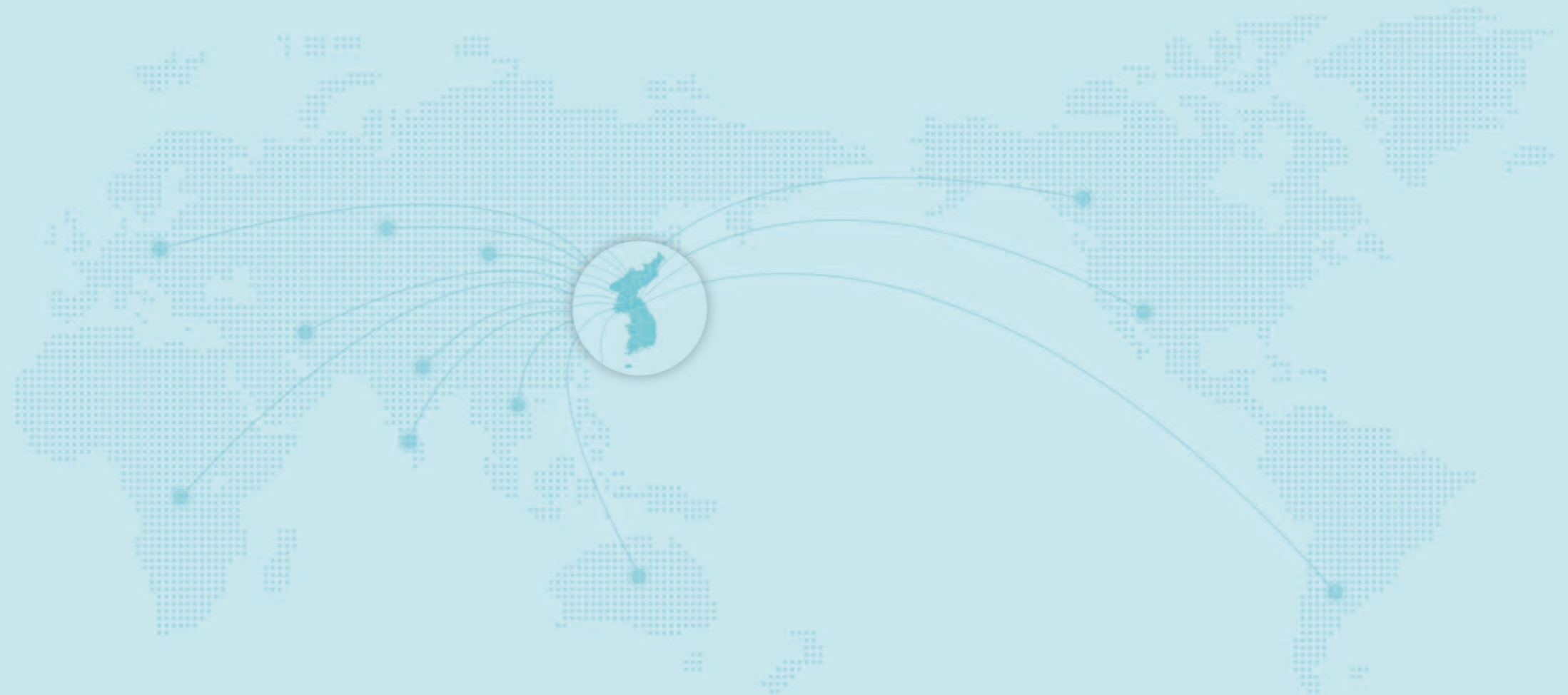
국가 연구 기능 메카로서의 거점 국립대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a
Mecca of National Research Functions

대한민국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소식지

Vol.10 (Tenth Issue)
July 2020

Korea NU10 MAGAZINE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발 간 등 록 번 호

11-7000126-000051-08

ISSN 2635-411X

CONTENTS

인사말 Greetings

04 2020년, 국가거점 국립대는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갑니다
 In 2020,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are moving further toward our goals.

메인 기획 Main Proposal

국가 연구 기능 메카로서의 거점 국립대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a Mecca of National Research Functions

- 06 거점 국립대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연구 활성화
 Research Revitalization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Conjunction with Local Industries
- 09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전략
 Strategies to Foster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 12 거점 국립대학과 연구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nd Research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5 코로나19 사태와 대학교육의 미래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ture of University Education

거점 국립대 소식 Korea NU10 News

18 2020년 제2차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의 개최
 2020 2nd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Meeting Held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 22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24 경상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26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 28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30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32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34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 36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38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40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42 Introduction to Korea NU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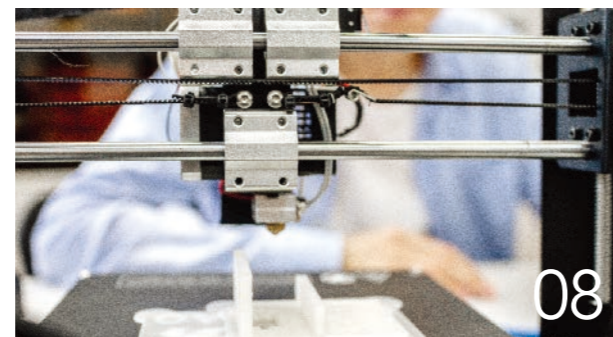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발행일 2020년 07월 15일(통권 제10호)
 발행인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 작 군디자인연구소 (Tel. 051-796-6600)

Date of issue 15/07/2020 (Vol.10)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el. 051-796-6600)



07

08



13



19

2020년, 국가 거점 국립대는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갑니다

In 2020,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are moving further toward our goals.

김상동
Sang-Dong Kim, Ph.D.

2020년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
경북대학교 총장

2020 Chairman,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esi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캠퍼스 강의실에 가득하던 열기가 온라인 강의실로 옮겨졌습니다. 교수님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예전보다 더 분주하게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캠퍼스에 학생들은 없지만 대학 운영을 위한 각종 행정사항은 더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도 평소보다 더욱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대면 강의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도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율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는 모습은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캠퍼스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경을 가로질러 시대의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 키신저가 지적한대로 "시대착오적인 성곽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또 다른 세상, 사이버 세상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움직임만 허락되고 있지만, 온라인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매트릭스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오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단절을 요구하는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더욱더 깊은 연결과 접촉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으로 온갖 영역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비대면 강의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시대의 기술들은 우리 생활에 적극적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형태와 내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파헤쳐나갈 것입니다.

2020년, 국가 거점 국립대는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서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인류의 미래를 견인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떤 재난 사태에도, 위기 상황에도, 아니 너무나 평온한 일상에서도 지켜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passion of the campus classroom shifted online. Professors are now busier than ever before, preparing their lectures to go online. Even though there are no students on campus, it seems there are more administrative tasks for university management, and to that end, our staff members are doing their jobs more thoroughly than usual. Students who were accustomed to face-to-face lectures also seem to be adapting to non-face-to-face classes where they discover and solve problems on their own. It is touching to see students expressing opinions through new, varied channels and preparing for classes autonomously.

The campus is changing. At a time when thorough social distancing is becoming the talk of the times across borders, we sometimes feel tempted to return to the "era of the anachronistic fortresses" as Kissinger once pointed out. Though, in the other world we now face - the cyber world - the opposite is happening. Physically, only minimal movement is allowed in order to maintain each other's safety, but the online world is different. There are copious data circulating in a matrix that many have a hard time imagining. Reality requires disconnection, but deeper connections and contacts are allowed in the online world. And that's being realized in all areas of life.

Universities are no exception. There were many concerns, but non-face-to-face lectures are becoming our daily reality. Already, the technologies of the new era have entered our lives. We can't reverse the stream. Universities will be more active in developing and exploring new content and form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2020,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are moving further toward their goals. We have been imposed with a tremendous responsibility a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o nurture the nation's talent and drive the future of mankind. That responsibility is, and always will be, our driving force; in the face of disaster, during crisis and even in the midst of the most peaceful days. We will always remember this responsibility. Thank you.

국가연구기능 메카로서의 거점 국립대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a Mecca of National Research Functions

2020년 6월,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국가와 지역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수한 대학을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로 공식 명칭화하기로 했다. 또한 10개의 거점 국립대학 간의 제도적 통합 내에서 각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한 연합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별로 특성화 분야, 비교우위 또는 국가전략분야 등을 육성하고, 서로 간 정보교류와 학문-학생에 대한 교류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거점 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지역 대학들을 선도하고, 지역산업체의 기술적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훌륭한 지역인재 양성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In June 2020, the Council of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decided to officially rename the outstanding universities that aim to foster talent for the country and the region,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t is also expected that each university will foster specialized fields, comparative advantages, or national strategic areas by establishing a joint system that secures autonomy of each university within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10 maj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Furthermore, it will expand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support for students and academics. The first step toward this is to recognize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being research-oriented. Leading regional universities, working together to solve technical problems of their local industries, and fostering local talent will become the cornerston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거점 국립대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연구 활성화

Research Revitalization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Conjunction with Local Industries



주정민
전남대 기획조정처장
Joo Chungmin
Dean, Planning and Contr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쇠퇴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자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요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기업본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문화와 복지시설의 대부분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Concentration on Seoul and its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and the Decline of Other Regions

Korea has a tendency to have its resource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centered around Seoul. However,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the concentration phenomen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not desirable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is pushing for various policies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ut so far they has not been effective. As time passes, this concentration is getting worse instead of easing.

Many of Korea's major universities are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are over 70 percent of corporate headquarters. Most Korean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are also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tributing to the absorption of the outside population. Additionally, many people, mainly young people, are mov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search of new opportunities.

REGIONAL
COMMUNITIES



지역 고졸자의 수도권 대학 진학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 대졸자의 수도권 기업 취업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 대학 졸업자의 24% 정도가 수도권 기업에 취업했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8% 정도만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역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은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지역 인구의 유출을 줄이는 것이다. 지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며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이 있어야 한다.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어, 기업 유지와 창업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거점 국립대의 역할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연구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기업이 만든 제품이 원활하게 판매되고 유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세제를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는 만들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은 한계를 갖고 있다. 대학 등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업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연구와 기술개발 수행은 물론 마케팅과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거점 국립대는 광역단위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다.

그동안 거점 국립대는 지역 중심대학이지만, 주로 수도권 주요 대학과 경쟁해 왔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분야 등에서 지역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학생들은 졸업 후 지역을 떠나 수도권의 대기업 등에 취업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교수들은 전국 차원의 연구와 서비스 제공에 치중해 왔다. 또한 거점 국립대는 전통적인 교육기능과 기초분야 연구수행에 초점을 맞춰 왔다.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실용교육과 연구기능에는 소홀해 왔다. 기초 및 보호학문의 육성, 그리고 기초 및 기본연구에는 집중투자와 관심을 기울였지만, 실용교육과 응용



Regional high school graduates are increasingly going to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raduates from regional colleges are getting more corporate jobs in the metropolitan area. About 24 percent of graduates from universities outside Seoul are employed by compan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t only 8 percent of graduates from universities in the Seoul area are employed by local companies. If this phenomenon persists,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come bloated, and the region will inevitably decline.

The designed measure to eas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to reduce the outflow of non-Seoul residents by supplementing areas lacking in compariso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Young people born in outside regions should settle in those regions and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In order for young people to reside in those regions, there must exist quality jobs and businesses where young people can stay and grow their dreams. Regional industries must be revitalized, and actively attract businesses and young start-ups.

The Role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Regional Communities

In order to activate region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manpower needed by companies in a timely manner and to support technology and research services demanded by corporations. Furthermore, products made by regional businesses must be sold and distributed seamlessly. This structure, however, can not be built simply by lowering taxes, easing regulations or providing incentives. There are limits to the ways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support companies, and commonly, companies solve their own problems. A sustainable industrial ecosystem can be established only when problems are solved in the local communities. And that includes universities.

Corporate support should be centered on universities in which companies and communities can find all necessary resources. Universities train the necessary manpower and can provide marketing and distribution services on top of conducting research and push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an abundance of skills and experience in education, research and the service delivery measures needed by their surrounding communities.

Even though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region-centered, they have historically been competing with major universities in Seoul. Theref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performing the necessary functions of the nation rather than of the local level in education and research fields. Students have been leaving the region and focusing on finding jobs at large compan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fter graduation, while professors have been focusing on providing research and services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largely focused on traditional educational functions and basic research. They have somewhat neglected the practical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needed in their local society. These universities foster basic and protective studies, and commit intensive investment and attention to basic research, but not much attention was paid to practical education and applied research. As a result, limitations in fostering manpower and performing research functions required by the community arise.

연구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양성과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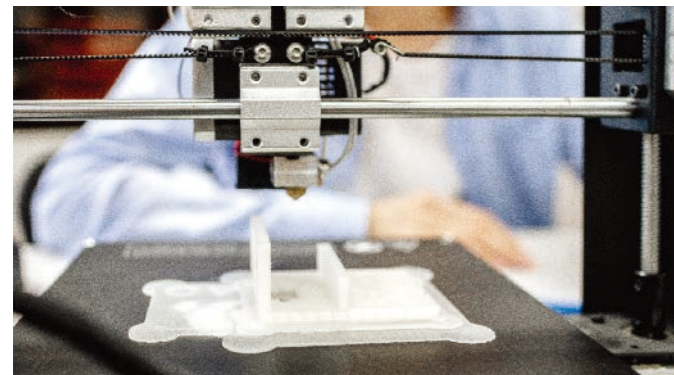
거점 국립대의 연구기능과 지역혁신

지역사회에서 거점 국립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지역 기업과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연구능력을 갖고 있다. 우수한 연구진과 실험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어, 지역 기업에 적합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초 연구에서부터 실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역 기업이 제품 개발과 생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로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

거점 국립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R&DB를 거점 국립대에 요구하고, 거점 국립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때로는 거점 국립대가 지역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R&DB의 수요를 파악해 적극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기술로 대표되는 산업혁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역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거점 국립대이다. 지역혁신이 이뤄진 해외의 주요 사례에서도 해당 지역의 거점 대학이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혁신의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아헨공대와 드레스덴 공대, 핀란드의 알토대, 미국의 스탠포드대 등이 대표사례이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국립대의 연구와 기술개발 기능은 단순히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차원을 넘어 지역의 생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지역 기업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지역 기업도 활성화되고, 기업유치도 가능하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에 기초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Research Functions and the Regional Innovation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ere are many functions that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required to do in their community, bu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needed technology development and research functions for local businesses and industries.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generally have research capabilities in the assorted industries needed by local industries. They have excellent researchers and experimental facility, thus they can provide the appropriate technology and services to the local businesses that have the best conditions to carry out individual phases of research, from basic to practical studies. In particula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considerable resources with which they can support local businesses when they face potential difficulties of developing and producing products.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ith their ample resources, should serve as leaders in regional revitalization by joining their communities and revitalizing their region. To this end, local governments and businesses should demand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s at their local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universities should earnestly respond to these calls. If necessary, the universities should establish an active support system by identifying the demand for R&DBs needed to revitalize local industries.

The main body that can best understand industrial innovation represented by digital technology and provide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services needed in the region is the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major overseas cases where regional innovation has been made successfully, universities based in the region play a role as the main agents of regional innovation through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Examples include Aachen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resden University of Technology in Germany, Alto University in Finland and Stanford University in the U.S.A.

The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unctions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industries are important in terms of regional survival, not just revitalization. A system that efficiently provides useful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o local companies must be created so that local companies can be activated and can attract additional companies.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more active in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considering that their existence is made possible by loc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전략

Strategies to Foster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김석수
부산대 기획처장
Seog Soo Kim
Dean, Department of Planning and Fina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연구중심대학은 “교수와 대학원생이 주로 연구부문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교육부문에서도 우수한 그들의 연구경험을 학부생에게 제공하는 대학”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고등교육의 정점에 있는 연구중심대학(research intensive universities; research universities)과 세계적 수준의 대학(world-class university)이라는 용어는 혼용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혼용되는 이 두 용어를 통합하여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명명한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과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우수한 인재(Talent)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되기 위한 핵심성공요인(KSFs) 중 하나는 선도적인 우수학자-우수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은 지속적으로 선진 국가에서 교육받은 자국의 뛰어난 선도학자들을 영입하고, 더디지만 우수한 외국인 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가 속한 대학의 총장은 올해 기관 업무보고에서 “연구와 교육만큼 중요한 임무는 우리보다 훌륭한 교수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라고 일갈하였다.

우수한 교원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일이다. 최고 수준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전제조건이자 또한 그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균형을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성공적인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공격적 전략을 선택하여, 대학 연구팀에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와 범위의 경제(scope economy)가 발현되게 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자원(resources)의 조달이 요구된다. 유·무형의 자원 중에서도, 풍부한 재정의 확보는 최고 수준의 대학시설과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앞서 언급한 연구능력과 교육능력이 탁월한 최고의 교원과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선진국의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The research-oriented university defines itself as “a university where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focus mainly on the research sector while also providing their vast research experience to undergraduates in education.” However, the terms research-oriented university, at the apex of higher education, and world-class university are sometimes used interchangeably. In this article, I will combine these two terms and rename them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What should universities and governments do to achieve the vision and strategic goal of cultivating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First, securing exceptional talent is essential. One of the key success factors (KSFs) for becoming a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y should be contingent upon securing leading scholars; excellent teachers.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ontinue to recruit outstanding domestic scholars who have been educated in advanced countries and slowly but surely entice talented foreign scholars from foreign countries. “The mission as important as research and education is to select better professors as it will determine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our university” said the presi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an institutional business report this year.

As important as securing excellent academics is attracting excellent students. Selecting and educating top-notch students is a prerequisite as well as a result of a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y. Balancing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is also an important task. Furthermore, in order to become a successful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adopt an aggressive strategy that gradually increases the proportion of graduate students so that the university’s research team can realize a scale economy and scope economy.

Second, sufficient resources must be available. Among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securing abundant financial resources is essential for securing the best academics and outstanding students with the aforementioned research and educational capabilities, and with the highest level of university facilities and education and research infrastructure. It should be noted that advanced countries’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have not only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from several additional sources of education and research funding.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strive to

라, 다양한 교육 및 연구기금 원천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거점 국립대는 산업계, 자선단체, 동창회 등 다양한 잠재적 기금조성 원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셋째, 대학의 건강한 지배구조(governance)가 필수적이다. 최적의 거버넌스, 강력한 혁신지향적 리더십, CEO형 총장이 필요하다. 대학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율권(autonomy)은 다양한 추가재원 확보 능력, 우수한 교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수를 제공하는 능력, 대학의 학사 프로그램과 강의 언어, 연구분야의 국제화 촉진능력 등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대학의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력을 보여줄 때, 리더십은 큰 힘을 발휘한다. 최고 수준의 교원을 높은 보수만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최고경영자인 총장은 교원과 직원 이 가슴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거점 국립대학 내부로부터 경쟁 방식에 대한 가치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독보적인 한 개의 대학이 독자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되기보다는, 대학 간 협업(예, UC 계열 대학)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협력에 기반한 집단 간 경쟁으로 세계적 연구 중심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 KOREA NU10은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제대로 협력하는 일이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대학 간 협력에서 나아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triple-helix가 나아가 quad-helix 시스템으로 파트너십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다양한 학문분야가 공존하는 거점 국립대학이 협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다섯째,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대학정책 주요 기조의 하나였던 국제화전략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강의 언어와 연구언어는 영어가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원의 증원이 필수조건이다.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국제화전략의 공격적 추진으로 거점 국립대학이 학문의 용광로가 되게 해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부터 변해야 나머지 대학도 변한다.

여섯째, 정부의 장기지향적인 고등교육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선진국 평균수준 이상으로 고등교육과 R&D부문에 대한 재정확대가 필요하고, 임계치(critical mass) 이상의 재정지원이 경쟁력 있는 거점 국립대학에 투입되어야 한다. 재정투입의 효과가 시연되는 임계치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중심대와 특수목적대, 나아가 사립대의 우수교원이 협력하는 국제공동연구가 끊임없이 발현되어야 한다.

일곱째,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이다. 적어도 7~10년 단위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 1차, 2차, n차 사업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연구지원은 긴 호흡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지금보다 더 강한 세계적 연구중심대

secure a multitude of potential sources of fund-raising, including industry, charities and alumni associations. We must not rely sol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healthy governance of universities is essential. Optimal governance, strong innovation-oriented leadership, and CEO-type presidents are needed. The most common autonomy associated with university governance is the ability to secure additional resources, to provide exceptional remuneration for excellent academics, to guarantee autonomy in university academic programs and in the language of the lectures, as well as to promote internationalization in research. When presenting attractive visions of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to all stakeholders and showing drive, leadership exerts great power. It is difficult to motivate the highest level academics with high pay alone. The president, who is the CEO, should be able to motivate academics and employees to produce with their heart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value standard for competition methods from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ternally. An approach based on intercollegiate collaboration (e.g. UC affiliated universities) is needed, rather than one unrivaled university becoming a world-class university through its own efforts. It should instead develop into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through cooperation-based inter-group competition. KNU-10 has great significance. The problem is cooperating properly. Partnerships are essential to foster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intercollegiate cooperation and cooperate with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The scope of partnerships should be expanded to triple-helix and even quadruple-helix systems.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here various academic fields coexist, should be at the center of cooperation.

Fifth, th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which was one of the Korean government's major pillars of university policy until the early 2000s, needs to continue. Lectures, as well as the research language of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is dominated by English. To this end, increasing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and foreign academics is a prerequisite to prominence. The aggressive promotion of the inbound and outbound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should make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 melting pot of learning. The rest of the universities will change only when there is change i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ixth, it is imperative for the government to expand its long-term-oriented higher education budge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inances of higher education and R&D sectors above the averag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nd financial support above the critical mass should be injected into competitiv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vestment should be made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threshold at which the effect of fiscal injection is demonstrated. Based on this,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should be constantly presented in cooperation with regional central universities, special purpose universities, and even private universities.

Seventh: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s to foster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The project of fostering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in at least 7 to 10-year units shall continue to be 1st, 2nd and nth phase projects. Sustainable research support will enable long-term research, and

학이 발현될 것이다. 그 중심에 거점 국립대학이 있어야 한다. 단기 효과가 아닌 장기지향적인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여덟째, 거점 국립대학이 입지해 있는 지역의 지방정부도 해당 지역의 거점 국립대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이 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지방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대학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에 국제적인 인재를 유입시키고,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 지역 기업, 그리고 시민이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 대학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는 표류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홉째,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정책과 제도 분야의 규제완화·철폐가 필요하다. 세계적 엘리트 대학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같은 운동장에서 경기해야 한다. 연구와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것과 같다. 대학현장에서 들리는 과감한 규제철폐의 목소리에 중앙정부도 귀 기울여야 한다. 교육현장에는 개선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거점 국립대학을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철폐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거점 국립대학을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낫지(nudge)전략이 필요하다. 고도성장기인 1970-90년대, 거점 국립대학은 우리나라 인재양성의 요람이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미래를 선도하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학의 열거리를 쿡쿡 찌러주어야 한다. 반응하는 거점 국립대학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점진적 개선(incremental improvement)을 넘어서, 거점 국립대학의 양자도약(quantum leap)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획기적 정부정책과 대학혁신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등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제거할 것은 제거(eliminate)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reduce), 강화할 것은 강화하면서(raise),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create) 한다. 개별 거점 국립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대학 내부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비효율이 있다면 줄여나가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오래된 관행은 제거해야 한다. 대학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내부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거하고 줄인 것 이상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제거하라. 줄여라. 강화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stronger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will emerg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at the center of this. A well maintained long-term-oriented strategic approach should be sought, not short-term effects.

Eighth, local governments in the region where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located should also generousl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make the universities world-class and research-oriented. Local governments should change their current stance that support for universities is up to the central government. Universities change the region, bring international talent to the region, solve the challenges of the community, promote the creativity of the region,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 region and become the driving force of the local economy. Local governments, local enterprises, and citizens should re-recognize the value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nd local universities. If necessar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make efforts to enact the drifting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Act.

Ninth, deregulation and elimina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institutions are necessary to foster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To compete with world-class elite universities, they must play on the same playground. Regulations in research and educational activities are like having global competition on a tilted playgrou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listen to the voices of drastic deregulation heard on university campuses. Regulations still remain to be improved at the educational site. Drastic deregulation and abolition are required to mak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orld-class and research-oriented.

Finally,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nudge strategy is necessary to foster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become world-class research-oriented. In the 1970s and 1990s, during the period of rapid growth,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ere the cradle of talent development in Korea. To help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lead the nation's innovative growth and make a second leap forward into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ally nudg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hea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sufficient foundation for responsiv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become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In conclusion, beyond incremental improvement, there is a need for innovative government policies and university innovation where quantum leaps can be made at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higher educ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eliminate what it needs to eliminate, reduce what it needs to reduce, strengthen what it needs to strengthen, and create new methods of operation. The same is true of individu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Don't rely sol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don't let go of the reins of university internal innovation. If there is an inefficiency deep in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t should be reduced. Old practices that hinder innovation should be eliminated. What can maximize the value of the university and maximize internal competenc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hen that which needs to be removed or reduced must be replaced with that which is new.

‘Eliminate. Reduce. Raise. and Create.’

거점 국립대학과 연구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nd Research



이성준
경북대 기획처장
Yi Seong-Joon
Dean, Strategy and Fina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학생 및 연구인력 수급 불균형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는 더욱 심하여 신문의 기사들은 전체 지방대학의 약 1/3 이상이 수년 내 고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인력수요에 맞춰 거점 국립대학이 인력을 교육하고 배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산업 구조를 선도해왔던 선순환 메커니즘이 빠져대기 시작했으며 조만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산업구조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현재 거점 국립대학이 처해있는 시대적인 환경은 대학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More than 50% of the nation's total population is currently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capital and its suburbs has been intensifying over the past two decades. Despite government policies to curb overcrow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gap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of students and research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ose ou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widening as a result of this ongoing concentration.

On top of that,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school-age people in rural areas has spiraled to the point where newspaper articles are reporting that more than one-third of all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ill be in decline in the coming years. As a result, the virtuous cycle mechanism, which has been lead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ommunity by educating and producing talent to meet the needs of the community, has begun to crack and is not expected to work as needed if left unchecked.

Additionally, in a time when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rapidly shifting from the manufacturing-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which was part of Korea's economic foundation,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innovative industrial structure-changes occur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방차지화를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 기능, 인력 등을 지방분권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맞게 지역사회로 분산 위임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거점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점 국립대학은 주변의 다른 대학, 지자체, 기업,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가 여러 분야에서의 지식, 기술, 정보의 생산과 교류의 중심점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여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사회 커뮤니티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지역사회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수요들을 창출, 추진할 수 있는 전략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지역사회에 여러 기관이 있지만 거점대학의 연구 역량이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높은 게 현실이라 연구에 있어서는 대학이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의 연구력 배양을 위해서는 종래의 수월성 위주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창의 융복합성이 어우러질 수 있는 융복합 연구에 연구력을 집중하여 연구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지역 거점대학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거점 국립대학에서의 연구 방향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직시하여 사회, 문화,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수행에 상당한 노력과 에너지를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거점 국립대학이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가 발전하여야 거점 국립대학이 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rough the convergence of economy and society, the current environment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local colleges and institute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harmful effects and problems of over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has been pushing for decentralization by setting up local self-governments. It aims to expand the autonomy of local communities in line with the paradigm shift of decentralization and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by decentralizing administration, functions and manpower, which have been excessively concent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 winds of change should be driven by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e flagship universities should strive to enhance their status as regional hubs by establishing joint research platforms stemming from preexisting industry-academic networks in local communities, including other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and related social organizations, assuming the leading role in creating new business and driving the region, as well as making the network a center for the production and exchange of knowledge, technology and information.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must establish uniform strategic systems to base their specific community development models off of and create and promote demand in accordance with the plans pursued by those communities based on agreements among regional players. Although there are many institutions in regional communities, the research capabilitie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institutions and thus these universities should perform the leading functions in research. In order to cultivate university research power, rather than continuing to focus on conventional easy-to-use research, a new concentration on converging research that can combine creative developments and expand the underlying research infrastructur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is more desirable. This role is best reserved for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t this time,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avoid researching for research-sake and focus considerable effort on carrying out research that can be of real help to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by tackling local issues. This is



대학은 거대한 전문지식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가진 지식과 아이디어를 지역 친화적인 문화발전, 지역 산업기술발전, 지역 경제발전을 이끄는 데에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학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제도를 마련하여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점 국립대학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산업경제 분야로의 특화된 연구개발에 적극 개입하여 인재 육성에도 정성을 쏟고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현재 지자체-대학 간에 추진 중인 휴스타(HuStar)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과제로서 훌륭한 예라 할 수 있다. 휴스타 사업은 중앙 예산이 지자체로 전달되어 지자체가 미래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 양성을 대학에 맡기고 이들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정착 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기업의 인력수급과 기술개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손잡은 산·학·관 클러스터라 볼 수 있다. 현재의 휴스타 사업은 학부생 교육을 위주로 하여 지역사회 인력 수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장차 이를 대학원생을 활용한 연구개발에도 확대하여 거점 국립대학이 연구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개별 연구자들의 수월성이나 개인 역량에 의존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는 규모가 매우 작거나 파편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4차 산업시대에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비교적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의 사립대, 연구소, 기업과 거점 국립대학의 교수 등 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융복합연구, 집단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거점 국립대학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4차 산업화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에도 힘을 기울이는 것이 지방 자치화 시대에 있어 거점 국립대학이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된다.



important because communities and their regional flagship universities have symbiotic relationships and community development will in-turn lead to further development of those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Universities are a huge pool of expertise. Their knowledge and ideas should be utilized to lead regional cultural development,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by playing a role in driving holistic community development. Furthermore,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work on community problem-solv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can address problems in the community including technical difficulties of companies in the region. Universities should propose ideas and prepare systems to deal with local problems.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ized in the industrial and economic sectors demanded by local communities, such as drafting industrial policies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sele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ields based on the network of industry-university-affiliated institutes, and strive to foster human resources and to have expertise and competitiveness in related fields.

The HuStar project, which is currently being promote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is an excellent example of a community problem-solving task. The project is a program in which the central budget is delivered to local governments, allowing them to help universities foster innovative talent to lead future local industries and help people settle in those areas, outside the capital. In other words, it is an industry-academic government cluster in which local government works with universities to tackle problems with corporate manpower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current HuStar project focuses on undergraduate education to feed talent to businesses in the region but the hope is that it will be able to expan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using graduate students in the future so that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an become a foundational pillar of research.

Universities have historically carried out research relying on the practicality or competence of individual researchers. Until now, research using the industry-university network has been very small or fragmented, but in the fourth industrial era it became relatively easy to build scattered network platforms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eveloped. It seems that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s to take the lead in building network platforms so that private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companies and flagship university faculty can put combine their expertise to conduct convergence and collective research and focus on fostering the human resources required by the Fourth Industrialization Era.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코로나19 사태와 대학교육의 미래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ture of University Education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Se-Jung OH
Presi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다. 감염의 원인이 되는 대면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익숙했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앞으로는 과거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대학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하는 입학식, 졸업식, 신입생 환영회 등 공식 행사의 모습은 사라졌고,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교수와 학생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그리고 동급생끼리의 인간적인 접촉과 동질감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대학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예측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1997년 유명한 미래학자인 Peter Drucker는 「Forbes Magazine」과의 인터뷰에서 “30년 후에는 거대한 대학 캠퍼스들은 유물(遺物)이 될 것이다. 대학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Drucker는 그 이유로 급속히 발전하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전통적인 대학들은 강의실, 기숙사, 도서관 등 거대한 시설과 교수진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생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러한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비용면에서 매우 경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Drucker가 예측한 시점이 7년밖에 안남은 현재, 세계적으로 대학들에게 것처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지난 20여 년간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개발되고 Virtual University가 생기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Harvard, Oxford 등 세계의 우수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넘치고 이들 대학이 곧 망할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면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기숙사와 도서관은 대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남아 있다. 이처럼 변화가 더딘 이유는 아마도 대학의 보수적인 풍토가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에서 면대면 접촉(personal contact)이 중요하다는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내려온 믿음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활자화되지 않은 ‘암묵적 지식’은 면대면 접촉에서만 전수 가능하다는 주장에는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대학들에게 Peter Drucker가 예측한 미래 대학의 모습을 급격히 강요하고 있다. 면대면 강의는 금지되었고, 기숙사와 도서관은 폐쇄되거나 극히 제한된 규모로만 운영되고 있다. 즉 과거의 전통적인 대학 캠퍼스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여러 아쉬운 점도 많지만, Peter Drucker가 주장한 미래 대학의 모습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대학 구성원들은 그 나름의 장점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에 부정적이던 교수들도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교육의 고유한 장점을 느끼게 되었다.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반복 학습할 수 있다는 점, 시를 접목하면 개별 학생별로 맞춤 지도가 가능한 점 등 과거의 전통적인 강의방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장점들이 보이는 것이다. 많은 학생도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이같은 경험은 앞으로 대학교육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의 모든 면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의 중요한 기능이 지식의 전수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교수와 학생 사이 혹은 선배와 친구와의 인간적인 교류를 포함한 사회적 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Clinton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으로 큰 업적을 남긴 Robert B. Reich 교수는 2000년 출판된 「The Future of Success(한국어판 “부유한 노예”)」란 책에서 “진실을 말한다면,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대학 교육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대학에서 만난 사람과 더 큰 관계가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육이 다른 곳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웅장한 도서관이나 교수들의 능력보다는 대학에서 얻게 되는 인맥 쪽일 것이다”라고 대학의 사회적 면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 점점 더 대학교육에서 중요해지리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미래 대학교육의 모습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hybrid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남보다 먼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교육의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점 국립대학교들이 이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The COVID-19 pandemic has left the whole world in chaos. With extreme limitations in face-to-face contact, daily life as we have known has become impossible, changing our entire ways of existence dramatically. Numerous experts predict that the post-pandemic world will be vastly different from what it was before. Of course, college education is no exception. Would-be memorable events such as entrance ceremonies, welcoming parties for first-year students, and commencement ceremonies have disappeared, and with most of the lectures being conducted non-face-to-face, any form of rapport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and among classmates has become difficult.

Ironically, such changes in university culture have long been anticipated. In 1997, renowned futurist Peter Drucker argued in an interview with Forbes Magazine that “within 30 years, the colossal university campuses of today will become relics of the past. Colleges will not survive.” This caused a huge controversy. Drucker provided the rapidly developing practice of online teaching as the basis for his prediction. The cost of maintaining huge facilities and faculty in universities became very high, resulting in high tuition fees. Online lectures do not require such extravagant facilities and manpower, which makes them much more cost-effective.

With only seven years remaining until the date specified in Drucker’s prediction, it is still difficult to say how profound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to universities worldwide have been. While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 and the creation of virtual universities, applications for world-class universities such as Harvard or Oxford have only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re is no indication that such trend will end soon. In most universities, traditional face-to-face lectures are still the norm, and facilities such as dorms and libraries remain essential. The conservative nature of universities, as well as the



ancient belief, going back to classical Greek and Roman times, that face-to-face, personal contact is vital in education might account for the slow change. In particular, it is still the general consensus that “implicit knowledge,” or the part of education that cannot be transcribed in print, can only be passed on in the context of face-to-face human interaction.

However, the COVID-19 crisis is urgently forcing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to reconsider their options and to consider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as Drucker predicted. Most face-to-face lectures are currently cancelled, and student facilities like dormitories and libraries are in minimal use. The college campus, or at least what we’ve known it to be, simply ceased to exist. As various members of the university community reluctantly experience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that resembles Drucker’s vision, we are discovering some unforeseen advantages as well. For example, professors who were initially against online lectures have begun to realize some unique advantages in them, such as freeing their lectures from “space and time” constraints, with students being able to review the content more efficiently. Other advantages include the exciting

possibilities of AI integration being able to offer more customized guidance to students. Many students are showing positive responses to these advantages.

While the coronavirus has changed the conventions of university education, not all aspects of offline education can be supplanted by its online counterpart.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a university education is the forming of invaluable personal relationships. Robert B. Reich, former Secretary of Labor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states in The Future of Success: “Here the truth can be told. The real value of a college education to one’s job prospects has less to do with what is learned than with who is met. ... To the extent that an Ivy League education has superior value, that value has less to do with the grandeur of its libraries or the cleverness of its professoriat than with the superiority of its connections.”

Still yet, now no one can deny the growing importance of online education, so we will have to find a reasonable middle-ground somewhere in between the two worlds. Through our experiences dealing with the novel coronavirus, we hope that our country, and especially our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lead the way into creating the new education models of the future.



2020년 제2차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의 개최

2020 2nd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Meeting Held

‘국가 거점 국립대’로
공식 명칭화,
2020년 제전 개최 취소

2020년도 제2차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상동 경북대학교 총장)가 5월 8일 전남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회의에는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10개교를 비롯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거점 국립대’로 명칭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는 거점 국립대라는 명칭이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지거국’, ‘지역 거점 국립대’, ‘지방 거점 국립대’ 등 지역 차별적인 느낌을 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수한 대학들을 지칭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올해 8~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한 2020 거점 국립대 제전 개최를 코로나19 사태로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2021년 개최교는 차기 회의시 결정하기로 했다. 거점 국립대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경기를 통하여 소통과 교류의 큰 장이 되는 거점 국립대 제전은 해마다 5월경에 개최됐다.

이 외에도 ▲교지(캠퍼스) 분리대학의 대학원 학생정원 통합 운영 ▲거점 국립대 원격수업 학점교류 참여대학 개설강좌 수업 평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입제도 개선 ▲국립대학교 직원 총원 방안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입학정원 조정 ▲연구활동 안전보험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타사항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1차 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의견도 공유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강의 시스템 확대에 따른 재정 지원, 대학 내 선별진료소 설치와 코로나로 휴학하는 중국 학생의 경우 비자 발급 간소화, BTL 기숙사 임차료 대학 자부담분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교직원 이수자 학교현장실습 이수 문제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에 대해서도 향후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제3차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의는 8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Officially named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and National University
Festival, 2020 Canceled

On May 8th, the second Council of Presidents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2020 (Chairman Kim Sang-do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as held in the conference room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meeting was attended by 10 schools of the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the Director of Higher Education Policy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he meeting formalized the new nam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The move aims to avoid the use of the previously known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a name that gives some examinees a sense of regional discrimination by being labelling "regional" or "local" flagship universities. The title change should enhance a positive image for all by referring to excellent universities aimed at nurturing talent for the country and the region. Also, the 2020 National University Festival, which was scheduled to be held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this year, was abruptly canceled due to the COVID-19 crisis. Also, the 2021 host school will be decided at the next meeting.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Festival, in which professors, staff, and students participate as a large venue for communication and exchange through various games, has been usually held each May.

In addition, the meeting held discussions on ▲ the integrated operation of graduate student quotas for universities that have separate campus ▲ Class Evaluation for remote class exchange amo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 Improvement of the payment system for employment fees for disabled public officials ▲ Measures to hire more staff in national universities ▲ Adjustment of the admission quota of foreign students at graduate schools and ▲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safety insurance for research activities. Additionally, there was a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a university integration network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hey also shared the Ministry of Education's review opinion on the first meeting's proposal. Positive responses were given on problems stemming from COVID-19 including financial support following the expansion of the online lectur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selective clinics in universities and the simplification of visa issuance for Chinese students taking a leave of absence due to COVID-19, and the budget support for BTL dorm rentals and universities' self-payments. The government also noted to take additional measures on the issue of practicum courses for students in Teachers' College and the deadline for submitting a fourth-phase Brain Korea 21 project plan in consideration of future trends.

Meanwhile, the third meeting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will be held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n August 7 and 8.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세계를 주도하는 첨성인,
미래를 선도하는
경북대학교



Wise, creative experts who lead the worl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knu.ac.kr

SNS www.facebook.com/knustory

경북대 'THE 세계 대학 영향력 순위' 첫 세계 100위 내 진입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 'THE World University Impact Rankings' Inaugural Inclusion inside Top 100 in the World

경북대학교는 최근 발표된 '2020 THE 세계 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세계 99위, 국내 3위, 국립대 1위에 올랐다. 경북대는 개교 60주년인 2006년 글로벌 100대 대학 진입을 선포한 이래 처음으로 세계 100위 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진리, 긍지, 봉사'를 교시로 대학이 가진 지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촌과 함께 나누며 대학의 공적 책임을 실천한 결과다.

특히 경북대가 세계 13위에 오른 '산업, 혁신과 인프라' 부문은 스피노프와 연구 성과 등 대학의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것이다. 경북대는 국내 처음으로 PTR 교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함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손잡는 등 기업과 지자체, 대학의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에 도입된 PTR 교수제는 대학 주도의 새로운 산학협력 혁신모델로 주목받았다. 현재 지역주요 전략산업인 로봇,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미래차, 의료 등 8대 분야 전문가 4명이 PTR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도입한 지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이지만 산학협력 성과도 속속 내고 있다.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19건의 애로 기술을 발굴해 기술 지도를 진행했으며, 국책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연구수행 과제 기획도 10여 건에 달한다.

경북대는 대구시와 경북도와 손잡고 미래 지역 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대는 지난해 휴스타(HuStar) 혁신대학사업(로봇·ICT)과 혁신아카데미(ICT)에 각각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 기관이 함께 기업 수요에 맞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고급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북대 산학현장기술지원 핫라인센터(이하 핫라인센터)도 지역 산업체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시 지원으로 경북대가 운영 중인 핫라인센터는 기술 자문이 필요한 소규모 창업 업체 및 중소기업이 전화 신청으로 비용부담 없이 신속한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8개 업체가 총 167건의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참여 교수만 55명에 달한다.

기아 해소 부문에는 경북대가 세계 36위에 올라 국내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았다. 경북대는 한국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농업생산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대는 2014년부터 코이카 석사학위연수사업 수행기관으로 대학원에 식량안보 및 농업개발학 전공을 개설, 농업기술 개발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식량생산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anked 99th in the world, third in Korea and first among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2020 THE World University Impact Rankings." The university has earned placement in the world's top 100 for the first time since it declared it would be included in the top 100 global universities in 2006, the 60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This achievement is the result of the university's dedication and public responsibility to both the local and global community, and its commitment to the school's deeply devoted philosophy of "truth, pride, and service."

In particular, the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category within the THE rankings, for whi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s ranked 13th in the world, evaluated the university's contribution to social innovation, including spin-offs and research achievements. The university is strengthening it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ystems with businesses, local government, and helping to driv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introducing the PTR teaching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joining hands with local governments to foster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 PTR teaching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November 2018, has drawn attention for its innovative university-led industry-academic model of cooperation. Currently, four experts in eight major strategic industries, including robots, ener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water,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ftware (SW), future cars and medical care, are working as PTR professors. Although it has only been about a year and a half since its introduction, it continues to produce impressive resul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local companies, technical guidance has been administered to 19 cases of concern so far, along with nearly 10 planning projects for conducting joint research to win national gran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ill join hands with Daegu Metropolitan City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o foster innovative talents who will help lead new industries into the future. Last yea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for the HuStar Innovative College Project (ICT) and the Innovative Academy (ICT), respectively. It is the first project in the country to be l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train innovative talent to meet corporate demand together.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prevent offshore outflow of local high-end personnel and establish a

valuable model in which young people can settle and develop the reg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 Industry-Academic Field Technical Support Hotline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otline Center), which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2, is also establishing itself as a partner for local industries. The Hotline Center, opera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ith support from Daegu Metropolitan City, allows small start-up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need technical advice to receive that technical advice promptly without any cost. Last year, 68 companies received technical advice a total of 167 times, from 55 participating professor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anked 36th in the world in the category of relieving hunger, the highest in Korea.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s also actively spreading its experience and technology in agricultural production to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Since 2014,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maintained a graduate school with a major in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as a method for carrying out a master's degree training project in KOICA. Als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fostering food production professional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education on 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경남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명문대학
The Best GNU

경상대학교



The World-Leading Prestigious University in Gyeongnam
The Best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gnu.ac.kr

SNS • www.facebook.com/smartGNU • blog.naver.com/gnujinju

경상대 교수들의 최첨단 분야 연구성과 빛났다

Outstanding research achievements in advanced technologies by professors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 김재연 교수,
차세대 유전자가위 핵심기술 개발
- 박준홍 교수,
전자기기 성능 한계 극복 길 열어
- 김준영 교수,
친환경 태양전지 핵심기술 개발

경상대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2020 학년도 1학기는 비대면 강의를 진행 중이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캠퍼스에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날아들었다. 경상대 교수들이 뛰어난 연구성과를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속속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대 교수들은 타 대학 교수들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연구의 수준과 속도를 높이고 연구결과의 검증과 확산에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BK21+) 김재연 교수팀은 지금 사용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보다 한층 진화한 차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에 사용할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작물의 유전체 디엔에이(DNA)를 인쇄기로 찍어 내듯 자유롭게 편집·교정하는 기술이다. 김재연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특허 2건을 등록했고 특허협력조약(PTC) 특허 2건을 출원했다.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박준홍 교수팀은 원자층 두께의 전이금속 칼로겐 화합물 표면의 화학적 특성을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저비용의 나노소재 계면 결함 제어법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각종 전자기기의 성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연구는 성균관대 정문석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했다.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김준영 교수팀은 중·소형 전자기기를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친환경 태양전지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김준영 교수팀이 개발한 태양전지 소자는 스마트폰, 헤드폰, 소형 블루투스 기기,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의 전원으로 충전해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갖는다. 연구팀은 서울시립대 김혁 교수, 서울대 이승현 박사가 포함됐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경상대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발표하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 2020년 학술기관 순위(Nature Index '20 tables: Institutions-academic)에서 국내 18위, 거점 국립대 5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에서 경상대는 2018년 연구경쟁력 점수 7.51에서 2019년에는 13.37로 무려 72.1%나 상승한 것으로 평가돼 눈길을 끌었다. 전체 순위도 지난해 26위에서 8계단 뛰어올라 18위를 기록했다.

경상대 교수들의 연구가 제품화, 산업화로 이어져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앞당기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Prof. Jae-Yean Kim developed the core technology for next-generation genome editing
- Prof. Jun Hong Park paved the way for overcoming the limited performance of electronic devices
- Prof. Jun-Young Kim developed the core technology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solar cell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20 Spring Semester, GNU has been shifting to online courses from face-to-face ones amid concerns over the COVID-19 pandemic. The campus was empty, but good news came in one after another. Professors at GNU keep publishing their outstanding research results in international scientific journals. They formed a joint research team with their counterparts from other universities to increase research productivity and speed, and to seek novel ways to verify and spread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 team led by Prof. Jae-Yean Kim, Division of Applied Life Science (BK21+), a graduate program at GNU, has developed the core technology for next-generation genome editing, an upgraded version of the current technology. The technology has been designed for plant genome editing and engineering, making it for a kind of biological DNA copy machine. Prof. Kim has registered two patents in the same fiel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iled two patent applic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The research team led by Prof. Jun Hong Park, Division of Nano & Advanc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has proposed a new method to control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surface of atomically thin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s). Moreover, the team has successfully developed a cost-effective, nanomaterial-based interface defect engineering method, which has paved the way for overcoming the limited performance of electronic devices. The study was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a team led by Prof. Mun-Seok Jeong at Sungkyun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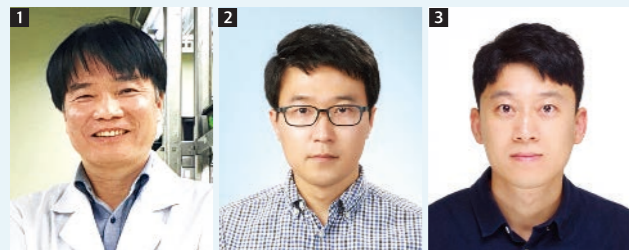
Last but not the least, the team led by Prof. Jun-Young Kim,

Department of Semiconductor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has developed the core technology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solar cells, which can quickly charge small- and medium-size electronic devices. The solar cell device developed by the team has high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that can be used by sharing power from smartphones, headphones, small Bluetooth devices, and wearable gadgets. The research was also joined by Prof. Hyeok Kim at the University of Seoul and Dr. Seung-Hyun Le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se remarkable achievements, GNU has placed 18th (among domestic institutes) and 5th (among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in Nature Index '20 tables: Institutions-academic, which is a research competitiveness index f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published by Nature, the world's leading multidisciplinary science journal. The ranking was noteworthy that the research output score of GNU increased from 7.51 in 2018 to 13.37, up 72.1%. Moreover, the overall rank has ascended from 26th last year to 18th. I hope that research efforts by professors at GNS will bear fruit in terms of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elping to facilitate human life's well-being.



1.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BK21+) 김재연 교수
Prof. Jae-Yean Kim, Division of Applied Life Science (BK21+)
2.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박준홍 교수
Prof. Jun Hong Park, Division of Nano & Advanc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3.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김준영 교수
Prof. Jun-Young Kim, Department of Semiconductor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Leap forward, PNU 부산대학교



Audacious Intellectuals
Leap forward,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pusan.ac.kr SNS www.facebook.com/PusanNationalUni

부산대 제21대 차정인 신임 총장 취임 “정부의 강력한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정책 시행토록 노력”

Cha, Jeong In, Ph.D., Becomes the 21st President PNU
"I will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to carry out policies to promote Korea's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부산대학교 제21대 차정인 신임 총장이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부산대학교'를 기치로 내걸고 5월 12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신임 차정인 총장은 부산대 법학과(79학번) 출신으로 1989~2006년까지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부산대 교수회 부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차정인 총장은 부산대 구성원들에게 보낸 첫 취임 인사를 통해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당장 1학기부터 성과 있는 한 학기가 되도록 수업지원과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조직개편과 대외활동에 본격적으로 임하겠다"며 "저의 간절한 생각은 명문 부산대를 향한 발걸음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이며, 저의 움직일 수 없는 약속은 정도를 견고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에 신뢰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에 맞서 정부로 하여금 전국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들의 발전이 곧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총장은 지난 2월 총장 당선 이후 총장직수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학교 현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대학 본연의 과업인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본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 지역 대학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

적 관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확충 등을 위한 대내외 활동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Cha, Jeong In, 21st presi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began a four-year term on May 12, under the slogan: 'Audacious Intellectuals, PNU'.

The new president, studied at the Department of Law at PNU (the class of 79), worked as a prosecutor and a lawyer from 1989 to 2006 and subsequently served as a professor of Law at PNU. He has also served as the vice-president of the PNU Faculty Council and the Dean of the School of Law.

President Cha, in his inaugural greeting to the members of PNU, said, "In the severe situation posed by COVID-19, I will do my best to provide class support and academic management so that the 1st semester can be a fruitful beginning. We will work on school reorganizations and external activities in earnest." "I strongly believe that progress can't stop in growth towards the prestigious PNU of the future, and I promise to follow virtue and to willingly go to any amount of trouble. I will boldly move on with my will because there are people who have shown confidence in my promises."

In particular, President Cha, emphasiz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concentration of resources in metropolitan areas, I will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to carry out policies to promote Korea's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o that the development of regional universities will soon lead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fter the election in February, president Cha formed a Presidential Preparatory Committee to focus on fully understanding various school issues and is now promoting a major re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headquarters to strengthen research and education which are the main missions of the university. Additionally, he plans to build trust with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ments, and other local universities, expanding internal and external activities to meet the employment growth for regional human resource in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mutual cooperation.

부산대, 국내 100대 기업 CEO 전국 5위 6명 배출...지난해 이어 'TOP 5'

PNU, No. 5 in the Rate of Top 100 Korean Company CEO Alumni. It ranks 5th in the nation for the 2nd consecutive year by producing 6 CEOs

국내 100대 기업 CEO(최고경영자) 순위에서 부산대학교가 전국 5위에 올랐다.

경영전문지 월간 현대경영이 5월 20일 발표한 '100대 기업 CEO 프로필'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CEO 127명을 조사한 결과 부산대 출신이 6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1위는 서울대로, 고려대·연세대·한양대·부산대·성균관대 순이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ranked 5th in the number of CEO alumni in the top 100 Korean companies.

The 'CEO profiles of the top 100 companies' published on the 20th of May by the management magazine, Monthly Hyundai Management, shows the survey result of 127 Korean CEOs from top 100 companies.

PNU with six CEOs, ranks 5th for the 2nd consecutive year. In 1st place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ed by Korea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Sungkyunkwan University.

부산대 로스쿨에서 3년 공부하면 10명 중 8명 변호사 합격!

PNU School of Law Has a High Success Rate of the Bar Examination 8 out of 10 applicants from PNU pass the Bar Examination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9기 졸업생의 합격률이 81.32%로, 전국 국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체(1~9기) 합격자는 115명으로 전국 4위였다. 부산대는 로스쿨 9기(2017년 입학~2020년 2월 졸업) 학생 중 제9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한 91명 가운데 74명이 합격해 지난해보다 16% 상승한 81.32%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부산대는 기수별 합격률에서 2018년 7기 57.41%, 2019년 8기 65.26%, 2020년 9기 81.32%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전국 순위를 2018년 20위에서 2020년 8위로 2배 이상 끌어 올렸다.

In 2020, 81.32% of 9th graduates of the PNU School of Law who chose to write the ninth bar examination were successful, ranking 1st among national universities. The overall number from the 1st-9th graduates is 115, ranking 4th in the country.

PNU had a high success rate of 81.32%, up 16% from last year. 91 of the 9th graduates (who were admitted in 2017 and graduated in Feb. 2020) first took the ninth bar examination. 74 out of them passed it.

In the past three years, PNU has doubled the national ranking from 20th in 2018, and to 8th in 2020 with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from 57.41% in 2018 (7th graduates), 65.26% in 2019 (8th graduates), and 81.32% in 2020 (9th graduates).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snu.ac.kr

SNS • www.facebook.com/SeoulNationalUniversity • [instagram/snu.official](https://www.instagram.com/snu.official)

서울대학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경주

SNU's response to COVID-19

서울대학교는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국면을 맞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바이러스의 기전을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다.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석좌교수와 장혜식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코로나 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가 숙주세포 내에서 생산되는 RNA전사체를 모두 분석했고, 기존 분석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RNA들을 찾았다. 이는 바이러스 유전자의 복잡하면서도 숨겨진 비밀을 풀 수 있는 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향후 고정밀 진단 시약과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병원 역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병원은 경북 문경에 있는 인재원을 활용하여 종합병원 최초로 생활 진료센터를 열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축적되는 과학적 성과를 공유, 코로나19의 확산이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데 공헌했다. 또한 병원은 치료제 개발을 위해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도하는 글로벌 임상시험에도 참여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제언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될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위원장 홍준형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5월 20일 첫 코로나 19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와 의과대학 교수 등 패널이 WHO와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했다. 또 갑작스러운 재난을 맞아 드러난 소통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보건 국가의 체계를 갖출 것도 제언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준비하는 국내 첫 포럼인 만큼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며, 서울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대인의 노력은 대표홈페이지에 신설된 '서울대 코로나19 통합 지식 허브(www.snu.ac.kr/coronavirus)'에서 모아 볼 수 있다. 허브는 국·영문 함께 운영되어 국내외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 발판을 마련했다. 인터뷰와 대중강연 등 영상 콘텐츠도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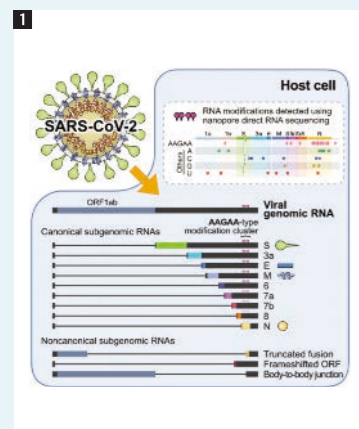
Since day one,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novel coronavirus has been a grueling, uphill battle. In light of the pandemic, SNU has mobilized all its forces, with doctors, researchers, committee members and students all contributing to flattening the curve.

The first step to a cure starts with understanding the ailment. To this end, Professors Kim V. Narry and Chang Hyesik, both of the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have completed a thorough analysis of the architecture of the transcriptome of the novel coronavirus, a step in unraveling the mystery behind what makes COVID-19 such a deadly killer. Through novel analytical techniques, the research team has shed light on how the coronavirus replicates in host cells, and identified the RNA sequences it generates in the infected cell environment. This landmark study provides scientists around the world with a blueprint for developing high-precision diagnostic kits and safe yet therapeutic vaccines.

Members of the SNU Hospital also work around the clock testing potentially infected individuals, treating confirmed patients, and researching a cure. The hospital recruited top talents from Mungyeong, Gyeongbuk province in establishing the first medical center devoted to treating patients with mild COVID-19 symptoms. These efforts were spearheaded by Dr. Oh Myoung Don, a specialist in infectious diseases, who is also chair of the Central Committee for Clinical Trials in Infectious Diseases. Simultaneously overseeing the treatment of hundreds of COVID-19 patients while keeping the nation informed on scientific progress that is being made in developing a cure for the virus, Dr. Oh has been a pivotal figure in allowing South Korea's healthcare system to remain firm even under the weight of the pandemic. At present, the SNU Hospital is collaborating with the 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n conducting a global clinical trial.

measures implemented by the WHO,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in order to formulate strategies needed to pave the road for a safer tomorrow. The forum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 as the country's first open coronavirus forum, receiving attention from the media and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Contents of the forum can be found on the SNU YouTube channel.

The latest updates regarding the university's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an be found at www.snu.ac.kr/coronavirus. Both English and Korean versions are updated almost daily. Future content will include interviews with and lectures by specialized personnel. Join us with your thoughts and opinions as we continue to strive towards creating a safer and healthier community.



1.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석좌교수-장혜식 교수 연구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RNA전사체 분석
Professors Kim V. Narry and Chang Hyesik, both of the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Professor Research Team, SARS-CoV-2 RNA transcript analysis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통합 지식 허브
SNU Responds to COVID-19 Integrated Knowledge Hub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통합 지식 허브 UI
SNU Responds to COVID-19 Integrated Knowledge Hub UI
4.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코로나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 포럼
SNU's Committee for National Planning "The Coronavirus Pandemic: Korea's Response So Far and Tasks Ahead," Forum



금지과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nu.ac.kr

SNS www.facebook.com/ChonnamUniv

전남대 '민주' 지키는 큰 걸음

CNU's Unflinching Endeavor for Defending Democracy

전남대학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고난과 희생을 마다않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엄혹한 시대에서도 민주, 인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왔다.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역사이다. 후학들은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성으로 기념해 왔다. 그 공간과 상징들을 하나로 잇고, '민주길'이라 이름 붙였다.

5·18 40주년 맞아 '민주길' 열려

전남대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 18일 정병석 총장과 박승현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수, 학생, 직원과 민주인사 및 유가족, 주요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길 열림식을 가졌다. 정병석 총장은 기념사에서 "민주길은 그날, 그곳에서, 그들이 외쳤던 시대정신을 기억으로 기념하겠다는 다짐이고, 민주주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힌 뒤, "우리가 첫발을 내딛는 '민주길'이 함께 나아가는 화합의 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길', '상생·번영의 길'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민주길'의 관리, 운영을 뒷받침할 '전남대학교 민주길 후원회(회장 김상윤)'가 출범했다.

'민주길' 이모저모

'민주길'은 학내에 산재한 11곳의 민주화운동 기념공간과 상징물들을 각각 '정의의 길', '인권의 길', '평화의 길'로 연결한 5km의 산책로로, 생활 속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자, 시민·학생들의 문화·휴게·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학교 중심축인 정의의 길(1.7km)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오월정신의 역사성을 종합하는 상징적인 길로, 5·18사적지 1호인 전남대 정문을 시작으로 박관현 언덕 - 윤상원 숲 - 김남주 뜰 - 교육지표마당 - 벽화마당 - 5·18광장 - 박승희 정원 - 용봉관을 거쳐 다시 전남대 정문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캠퍼스 동쪽에 조성된 인권의 길(1.8km)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탄압의 현장과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인권향상을 위해 투쟁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길로, 전남대 정문 - 용지 - 전남대 동문(후문) - 오월열사 기억정원 - 용봉열사 추모의 벽 - 5·18광장으로 이어진다.

서편에 조성된 평화의 길(1.5km)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꿈꾸고 실천했던 자들과 대한민국 통일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길 수 있는 사건을 담은 길로, 전남대 정문 - 평화쉼터 - 윤한봉 정원 - 윤상원 숲으로 연결된다.

'민주역사기념관'도 조성

전남대는 '민주길'에 담긴 의미를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 '민주역사기념관' 조성을 추진한다.

전남대는 '민주역사기념관'을 통해 '민주길' 방문객들에게 전남대학교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각종 유물과 자료 전시, 영상물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역사기념관'에는 자료전시관, 역사관, 교육관, 리셉션 공간, 기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옛 출판부 건물의 일부를 보전, 활용해 건립될 예정이다.



CNU has always been at the center of civil uprisings despite sacrifice and suffering whenever the country is in trouble. Even in harsh times, CNU has taken the lead in establishing democracy, human rights, and justice, and protecting freedom and peace. It has been a source of pride and glory of CNU's history, which is a very rare and precious value for a university. CNU also has meticulously documented and sincerely commemorated this glorious history. Inheriting such a tradition, CNU commemorates its praise-worthy history by establishing the CNU Democracy Trail that connects relevant places and symbols as traces of its lasting legacy left on the campus.

CNU Democracy Trail Celebrates the 40th Anniversary of May 18

CNU hel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CNU Democracy Trail on May 18th to commemorat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with over 200 people including professors, students, staff, those who contributed to democratic movements, their family members, and heads of major institutions, including CNU President Jeong Byung-seok and President Park Seung-hyeon of the CNU Alumni Association in attendance.

President Jeong said at the ceremony that the "CNU Democracy Trail is a pledge to commemorate the spirit of CNU, which was declared in witness of the historical moments. It is also an expression of our willingness to inherit the tradition of upholding democracy. We take our first steps on the CNU Democracy Trail today, hoping that at the end of this road, we can find a harmonious community where we work and live together based on solidarity and community spirit, and the foundation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The CNU Democracy Trail Sponsorship (Chairperson: Kim Sang-yoon), which will support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NU Democracy Trail also marked its establishment on that day.

Detailed Routes of the CNU Democracy Trail

The CNU Democracy Trail is a 5 km trail that connects 11 memorial spaces and symbols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scattered around the campus. It consists of 'The Road of Justice,' 'The Road of Human Rights,' and 'The Road of Peace.' It is expected to be shared as a space for local culture, leisure, and communication for residents and students.

'The Road of Justice' (1.7 km), which crosses the central axis of

the school, is a symbolic path that combines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the historicity of the May 18 spirit. It starts at the CNU Main Gate, which is the no. 1 Registered Historical Place of May 18 and leads to the following locations: Park Gwan-hyun Hill - Yoon Sang-won Forest - Kim Nam-ju Courtyard - Education Manifesto Madang - Mural Madang - 5-18 Square - Park Seung-hee Garden - Yongbong Hall - CNU Main Gate.

'The Road of Human Rights' (1.8 km), established on the east side of the campus, is a path that contains the voices of those who struggled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while fighting against the oppression of on human rights and state violence in the course of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It connects the following locations: CNU Main Gate - Yong-ji - CNU East Gate (Back Gate) - May Patriotic Martyrs' Memory Garden - Yongbong Patriotic Martyrs Memorial Wall - 5-18 Square.

'The Road of Peace' (1.5 km), formed on the west side, is a path that reminds us of those who dreamed about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evoted themselves to the unification movements thereof. It starts at the CNU Main Gate and leads to the following sites: Peace Park - Yun Han-bong Garden - Yoon Sang-won Forest.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History Memorial Hall

CNU will establish the tentatively named Democratic History Memorial Hall in order to promote the CNU Democracy Trail 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trail and furnish various conveniences to visitors.

According to CNU, it plans to spread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the history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CNU to visitors of the CNU Democracy Trail through the Democratic History Memorial Hall. In addition, the exhibition of various artifacts, materials, and videos the Memorial Hall provides will help visitors learn more about history and feel the spiri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o this end, the Democratic History Memorial Hall will include an artifacts exhibition hall, a historical record hall, an education hall, a reception area, and other convenience facilities. It will be built where the former CNU Press used to be by preserving and utilizing parts of the old building, which has historical importance.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The Best Gloc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bnu.ac.kr

SNS www.facebook.com/jbnu1947

전북대 약학대학, 비전 선포 통해 도약 다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harmacy, pledges to leap through vision declaration

지난해 30년 숙원이었던 약학대학을 유치한 전북대학교가 5월 29일 대학 내 진수당과 글로벌인재관 등에서 비전선포식과 헌판 제막식을 갖고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과 채한정 약대학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과 지역의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전북대 약대의 본격 비상을 축하했다.

개식과 국민의례 등으로 시작된 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채한정 초대 학장이 '인류의 건강을 지향하는 글로컬 약학 허브'라는 약대 비전을 선포했고, 약대 이윤섭·김다인 학생의 선서문 낭독을 통해 혁신형 바이오 제약 글로벌 리더와 생명존중의 약료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글로벌인재관 입구에서는 약학대학을 알리는 헌판 제막식을 통해 전북대 약학대학 도약의 시작을 대외에 알렸다.

또한 글로벌인재관 큰사람홀에서 전북대 약학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원이 함께 '제121회 한림콜로키움'을 열고, 약학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 30명 정원의 약학대학을 유치한 전북대는 2020학년도 PEET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편입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함으로써 본격 출발을 알렸다. 현재 선도적 교육과 연구를 주도할 7명의 전임교원이 재직하고 있다.

전북대 약대는 '인류의 건강을 지향하는 글로컬 약학허브'를 비전에 두고 혁신형 바이오 제약의 글로벌 리더 양성과 생명존중의 약료서비스 전

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2개의 트랙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산업약사와 임상약사를 양성한다.

또한 특성화된 산업 약사 양성을 위해 신약개발 전 주기를 이해하는 통합적 교육과 제약사와 협력을 통한 제약경영 융합 교육, 그리고 바이오·제약의 창업과 경영 역량까지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약사와 함께 실무실습을 강화하고, 학부 과정에서 대학원으로 연계되는 교육과 함께 천연물 기반 제약회사와도 연계해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을 예정이다.

김동원 총장은 "구성원 모두의 간절한 숙원이었던 약학대학은 전북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올 3월 학생들을 선발하고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세상에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약학대학을 '인류의 건강을 지향하는 글로컬 약학허브'로 만들고, 혁신형 바이오 제약 글로벌 리더와 생명존중 약료 서비스 전문가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ast yea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hich attracted the School of Pharmacy, which had been aspiring for 30 years, pledged to take a leap forward with a vision declaration ceremony and a signboard unveiling ceremony at the Jinsu-dang and Global Leaders Hall in the university on May 29th.

On this day, the university's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Kim Dong-won and Chae Han-jeong, Dean of School of Pharmacy as well as current and past Members of Congress from the region, were celebrating the School of Pharmacy's full-fledged launch.

At the vision declaration ceremony, which began with the opening ceremony and the Pledge of Allegiance, Chae Han-jeong, the first dean, announced the pharmacy's vision of "Glocal* Pharmacy Hub aiming for Human Health", Lee Youn-seob and Gim Da-in, the current students of School of Pharmacy pledged to be a global leader in innovative bio-pharmaceuticals and a life-respecting medical service expert by reading the statement.

Subsequently, JBNU announced the start of the School of Pharmacy through a signboard unveiling ceremony at the entrance of the Global Leaders Hall.

Furthermore, the 121st KAST Colloquium organized by JBNU School of Pharmacy and the Kore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was held at the Geunsaram Hall of the Global Leaders Center to look into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Pharmaceutical field.

After attracting the School of Pharmacy with a capacity of 30 students in last year, JBNU recruited new students through the 2020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PEET) and announced its start. There are currently seven full-time faculty members who will lead pioneering education and research.

JBNU School of Pharmacy aims to foster global leaders in innovative bio-pharmaceuticals and experts in life-respecting medicine services, under its vision named "Glocal Pharmacology Hub aiming for Human Health." To achieve this vision, it operates two specific education tracks which train industrial pharmacists and clinical pharmacists required by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to foster specialized industrial pharmacists, the school plan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integrated education for the entire cycle of new drug development, and the education on convergence of pharmaceutical management through cooperation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Also it will foster talented people with the ability to start and manage bio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In particular, the School of Pharmacy will strengthen practical practice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maintain close cooperative relations, and develop natural product-based medicines in conjunction with natural product-based pharmaceutical companies along with the education linked to graduate schools from undergraduate courses.

President Kim Dong-Won said, "JBNU School of Pharmacy, which was a long-cherished desire of all its members with enthusiastic support of the residents of North Jeolla Province, selected students and took a strong first step in March of 2020 year. We will put all efforts to make the School of Pharmacy to become a 'Glocal Pharmacology Hub aiming for Human Health' and foster innovative bio-pharmaceutical global leaders and life-respecting medicine service experts who become the lamp of the Future in Korea "

Glocal* = Global+Local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To the Basic, For the Fu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ejunu.ac.kr SNS www.facebook.com/제주대학교-153614575665629

전국 주목받은 '지역선도대학 성과포럼' 행사 전 과정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진행

Nationally noticed 'Regional Leading University Achievements Forum' conducted untact, via online live coverage

'코로나 19' 여파로 '거리두기'가 새로운 사회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학교가 전염병 대유행 시대에 걸맞은 포럼 행사를 개최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행사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제주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 보고회인 'Great 성과포럼'이 그것이다. 행사는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열렸다.

이 포럼은 제주대가 '제주권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Great 프로그램'의 1차년도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우수 체현수기 대상자들의 사례 발표, 심사위원의 질의 및 심사,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PPT, 영상 등을 통해 발표했다. 온라인 송출 시스템을 갖춘 스튜디오에 자리한 심사위원은 발표를 본 뒤 사업 참여 과정에서 느낀 점을 질문했다. 참가자 전원과 가진 질의응답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웹엑스 플랫폼 안에서 이뤄졌다.

이 모든 과정이 지역 유력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국에 실시간 중계됐다.

제주대는 "이번 온라인 생중계 성과포럼은 첫 시도였지만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우수 아이디어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In accordance with the new measures of social distancing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Jeju National University conducted its forum event that attracted nationwide attention for its handling of the viral spread in a timely fashion.

Entire event of the JNU regional leading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presentation, 'Great Achievements Forum' was conducted untact via online live coverage. It was held for 3 hours, from 2 to 5 p.m. on April 24, 2020.

The forum provided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first year accomplishments of the Jeju regional leading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Great Program.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egional tailor-made leaders training program presented their experiences, Q&A and reviews by the examiners panel, and individual achievement presentations.

The students presented their talks with the aid of PPT and film images. The examiners sitting in the online broadcasting studio were able to ask questions and offered comments. The two-way, interactive communications took place through webex platform.

The entire process was online broadcast nationally live via leading regional internet news media.

The university offered the comment that online live coverage of the achievements forum was not only the first attempt by the regional society, but also received nationwide responses for it to be worthy of benchmarking by others.



기상기후분야 전문 인력 양성한다 기상청과 협약 학연 석·박사과정 개설

**JNU to train weather specialists ;
Master's and doctorate's degree program established for KMA**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연)가 기상청(청장 김종석)과 함께 기상기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주대는 5월 13일 기상청과 기상기후분야 연구개발 및 지역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기상과학원과 공동으로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을 개설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재해 예방, 지구환경 보존 등 기상청의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3년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학연 협동 연구 석·박사 과정에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주상원)은 현장실습 연구 과정을, 제주대는 이론 중심의 강의를 담당한다.

이번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은 일반대학원 해양기상학 협동과정 내에 설치된다. 이 학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상예보, 첨단 관측기술, 기후변화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두 기관은 또 협약을 통해 교육훈련과 전문인력·학술정보 교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송석연 총장은 "이번 협약이 실무연구 중심의 기상기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제주가 기상기후 연구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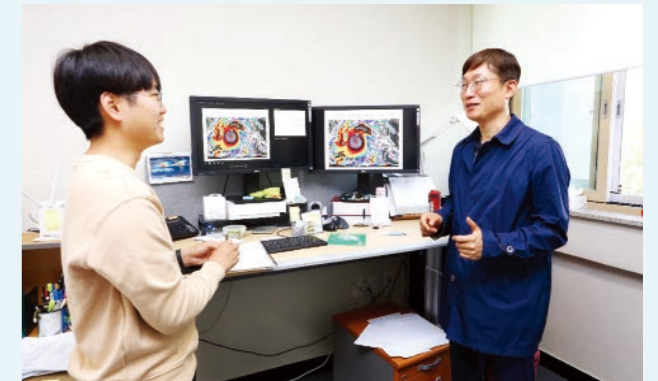
Jeju National University(Seok-Eon Song President) has signed the agreement with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Jong Suk Kim, Administrator) to collaborate in meteor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rain weather specialists last May 13.

In the bilateral agreement, the participants collaborate in training meteorological professionals through joint research and implement the master's and doctorate's degree program

The KMA has been responsible for practical research in weather disasters/prevention, Earth's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o provide the meteorological services for citizens as its research institute relocated to Seogwipo in 2013.

In the collaborative program the KMA National Meteorological Institute offers on-site practical training and research, whereas the JNU provides lectures in theoretical concepts in meteorology. The agreement also covers student training, academic information exchange, joint seminars and conferences, and sharing the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training and research program.

President Seok-Eon Song stated that the collaborative agreement wa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training of weather/climate specialists and for Jeju to become a center of research in practical meteorology.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충남대학교



The 100th Anniversary of CNU,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nu.ac.kr

SNS www.facebook.com/CNUNOW

충남대학교,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교육 메카 발돋움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 Mecca of Convergence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충남대학교에 4개의 첨단학과, AI융합연구소, 융합보안대학원이 신설 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첨단 교육, 융복합 교육의 메카로 거듭난다.

최근 교육부로부터 첨단학과 설치 승인에 따라 2021학년부터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생명정보융합학과가 신설된다. 학과별 정원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40명,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30명, 인공지능학과 40명, 생명정보융합학과 26명으로 총 136명이다.

또한, 충남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공지능(AI) 융합연구 및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융합연구소'에 선정됐다. 시융합연구소에는 컴퓨터 전공, 약학 전공, 생물 전공, 축산학 전공, 원예학 전공이 참여하며, 2021년부터 매년 40명(석사 35명, 박사 5명) 이상을 선발해 사업기간 동안 신약개발 및 유전체 기반 동반진단, 스마트 정밀 축산, 개인 맞춤형 식품 분야의 창의적 시융합 인재 100명을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융합보안대학원'에도 충남대를 선정했다. 최장 6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는 융합보안대학원은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시티 융합보안 특화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NU) will be reborn as a mecca of advanced technology and convergence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anks to the establishment of four new

departments of advanced technology, the AI Convergence Research Center, and the Convergence Security Graduate School. From 2021, following recent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create departments of advanced technology, CNU will be establishing four such departments consisting of 40 smart city architecture students, 30 autonomous operation system engineering students, 40 artificial intelligence students, and 26 bioinformation convergence students totalling to 136.

CNU was sele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o manage the AI Convergence Research Center with the goal of stimulating AI convergence research and cultivating human resources in the field. The departments of computer science, pharmacy, biology, animal husbandry, and horticulture will be actively involved with the AI Convergence Research Center. From 2021, during the project period, more than 40 students (approximately 35 master's students and 5 doctoral students) will be selected every year to foster 100 talented students in creative AI convergence fields such as new medicine development and genomic-based companion diagnostics, smart precision livestock, and personalized foo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lso selected CNU to manage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ecurity, 2020'. The Convergence Security Graduate School will undertake specialized education and world-class research into smart city convergence security in the smart city industry field with the support of up to 4 billion won for a maximum of six years.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본격화

The Full-Scale Promotion of a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충남대학교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4월 24일, 대학본부 2층 리더스룸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대 이진숙 총장, 대전시 허태정 시장, 세종시 이춘희 시장, 충남도 양승조 지사 등 대전·세종·충남권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충남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대학과 대전·세종·충남 지자체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충남대와 지자체들은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혁신성장 연계 핵심인재 공동 육성 ▲지역수요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동 개발 및 추진 ▲지역혁신플랫폼 정보 공유·관리·구축 총괄 추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제반 사항 공동 수행 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심대학-지역혁신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충남대를 비롯한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공공기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준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 보조를 맞춰왔다.

CNU held an agreement ceremony for the promotion of a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on April 24th at the Leaders room located at the second floor of the university headquarters. The directors of the organizations in Daejeon, Sejong, and Chungcheongnam-do involved with the regional innovation project, including Jin-sook Lee, the president of CNU; Tae-jeong Heo, the mayor of Daejeon City; Chun-hi Lee, the mayor of Sejong City; and Seung-jo Yang, Chungcheongnam-do's provincial governor, attended the agreement ceremony.

This agreement presents a platform to carry out the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Daejeon, Sejong, and Chungcheongnam-do, and the local universities centered on CNU was established, and a genuine willingness for the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this innovation project was expressed.

CNU and the local governments shall make a joint effort to promote local industry and foster talented individuals connected to local innovation joint development and to promote the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ased on local demands. All parties have agreed to the overall control of sharing, managing and building a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nd joint fulfillment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lso, a regional cooperation committee will be established to work in collaboration with central university-regional innovation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project.

CNU and the other local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industry, and public institutions have held a forum on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growth for the preparation of the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project and maintained cooperative assistance by forming a consultative body for the project since December last year.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hungbuk.ac.kr SNS www.facebook.com/cbnu1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신설 CBNU, establishes Dept. of Intelligent Systems and Robotics

국립대 최초 인공지능&로봇특성화 학과 설립

충북대학교가 세계의 인공지능(AI)과 로봇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 산업분야에서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립대 최초로 인공지능(AI) 및 로봇 특성화학과의 지능로봇공학과를 설립, 오는 2021학년도 수시전형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능로봇공학은 전자-SW-컴퓨터-기계 융합학문으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을 공부하는 첨단학문이다. 졸업생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지능로봇공학과는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우수교수진을 확보하고,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실험실습 시설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로봇 및 자율주행 전공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미래 자동차,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인 미래의 지능로봇산업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The first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 robotics specialization among National Universit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s planning to establish Dept. of Intelligent Systems and Robotics,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robotics specialization for the first time among national universities and recruit new students starting with the 2021 rolling admission as the demand of technical professionals has increased in every industrial field due to the rapid growth of AI and robot markets.

Intelligent robotics is the combined science of electron, software, computer and machine. In other words, it is the ultramodern science that studie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autonomous driving based on IT. Graduates can enter any industrial field that requir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 technology based on IT.

The Department of Intelligent Systems and Robotics has an excellent faculty with rich experience and the best laboratory practice facilities in our country such as autonomous vehicle test beds. Based on these, we will operate robots and autonomous driving clubs and try our best to foster talented people who can lead the future intelligent robot industry, which is the core industr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intelligent robots, future vehicles, Internet of things and smart factories.

충청북도와 중부권 방사광가속기 기반 융합연구 및 인력양성 맞손

CBNU and Chungcheonbuk-do signed MoU to establish synchrotron radiation accelerator in a central area

충북대학교가 충청북도와 함께 미래 소재와 생명산업 연구의 핵심사업을 선도한다.

기초과학부터 응용연구, 산업계까지 포괄적으로 활용되는 초정밀 거대 현미경인 방사광가속기가 충청북도에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충북대는 앞으로 방사광가속기 활용 융합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발전계획 수립, 방사광가속기 빔 라인 구축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 활용 등을 포괄적으로 협력한다.

한편,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빔을 이용해 방사광을 만들어 각종 물질의 미세구조를 관찰하는 장비로, 미세구조 관찰이 필요한 기초 연구부터 차세대 신소재, 초소형 기계 부품, 신약, 반도체 개발 등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eads the core research project of future materials and BioIndustry with Chungcheonbuk-do.

As the synchrotron radiation accelerator, which is an ultra-precision large-scale microscopic microscope that is widely used from basic science to applied research and industry, has been decided to be attracted to Chungcheonbuk-d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ill continue to use convergence research, foster professional manpower, and establish a cluster of synchrotron radiation accelerator based on industry academia research clusters, and develop plans. Furthermo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ill cooperate comprehensively, including the use of all stages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radiation accelerator beam line to its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a synchrotron radiation accelerator is a device that uses the electron beam to make radiation light and observes the microstructure of various materials. Moreover, the synchrotron radiation accelerator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from basic research that requires observation of microstructure to advanced industries such as advanced materials for next-generation, ultra-small mechanical parts, new drugs, and semiconductor development.

기업이 뽑은 신소재 분야 우수대학!

CBNU, selected by companies as an excellent university in the field of advanced materials!

신소재공학과, 대교협 발표 산업계 관점 최우수 학과 선정

충북대학교 신소재공학과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산업계 입장에서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관련 교과목 등을 제안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부합 정도를 평가하는 사업인 '2019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신소재(금속·세라믹) 분야 최우수 학과로 선정됐다.

신소재공학과는 소재 부품 산업 분야의 요구에 맞춰 ▲기초 ▲재료 특성 ▲공정 및 응용 ▲평가 및 실험 ▲설계로 구분한 전공 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소재공학 설계입문 ▲스마트 융복합소재 캡스톤디자인 등의 산업 수요 맞춤형 전공실무 교과목 개편을 통해 학생의 실무 능력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해왔다.

이와 더불어 현장실습, 전담지도교수제, 산학 및 취업특강 세미나 등 다양한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해 신소재 분야에 특화된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충북대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2016년 기계공학과(기계부문), 2017년 화학공학과(정유석유화학부문), 전자공학부(전자반도체부문)가 최우수 학과로 선정된 바 있다.

The Dep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selected as the best department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announced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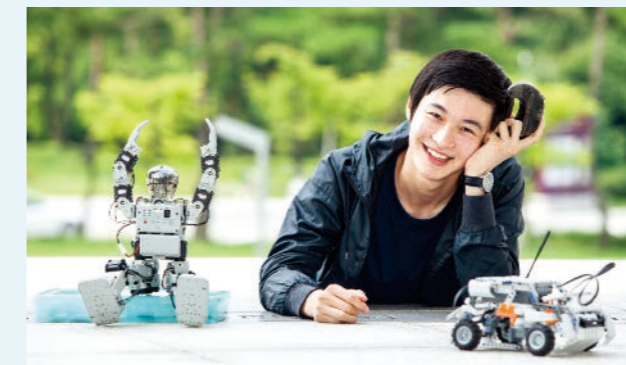
The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as the best department in the field of advanced Materials (e.g. metals, ceramics) at '2019 Korean

University Assess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y'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It proposes core competencies and related subjects required for job performance in each field of industry and evaluates the degree of conformity to the university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material parts industry, the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has been operating a system for major completion composed of ▲ Basic ▲ Material Characteristics ▲ Process and Application ▲ Evaluation and Experiment ▲ Design and strengthening students' practical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reorganization of major practice subject courses tailored to industrial demand such as ▲ Introduction to New Material Engineering Design ▲ Smart Convergence Materials Capstone Design, and so forth.

In addition, we are actively supporting students' participation in various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s such as internships, a dedicated supervisor system and special seminars for getting a job and strengthening practical training specialized in advanced materials.

On the other hand,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machinery) in 2016, and th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refining petrochemical), and the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electronic semiconductor) in 2017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used to be selected as the best departments at the university evaluation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kangwon.ac.kr SNS www.facebook.com/knu.abs

‘김헌영 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 취임

Inauguration of Kim, Heon-young, the 12th KNU President



강원대학교 제12대 김헌영 총장이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6월 7일부터 2024년 6월 6일까지 4년간이다.

김헌영 총장은 지난 3월 11일 교수·직원·학생들이 현장PC투표와 모바일·이메일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1차 투표에서 44.62%(365표)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결선투표에서 55.38%(489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김헌영 총장은 6월 12일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과 연구 혁신을 이루겠다”며 “강원대만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헌영 총장은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서 있으며, 앞으로의 4년은 대학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대학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시기로 만들겠다”며 “대학재정 6000억 원 시대를 열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거점 대학 최고 수준의 혜택을 누리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헌영 총장은 서울대 기계설계공학과 학사 및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3년부터 강원대 기계의용공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강원대 기획처장, 의료기기연구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4대 회장, 강원대 제11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김헌영 총장은 선거기간 동안 ‘이제는 시스템이다 포용적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성장으로’를 슬로건으로, ▲분권형 책임부총장제 도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정부-지자체와 대학소멸 위

기 공동 대응 ▲세계 500위권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도약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 ▲Universal Design Campus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초연결 교육 플랫폼 구축 ▲하나의 강원대 시스템 구축 ▲거점대학/지역대학 연합체제 구축 ▲연간 2,000억 원 신규 재정 확보 등을 약속했다.

Kim, Heon-young, the 12th KNU President was officially inaugurated. His term of office is 4 years from June 7, 2020 to June 6, 2024.

The 1st ballot for president appointment candidates was held on Wed. March 11 this year where professors, staff and students participated in a ‘direct election system’ via onsite PC voting and mobile/e-mail voting. The ratio of approval votes for President Kim was 44.62% (365 votes) putting him on the first place in the 1st ballot. He then earned 55.38% (489 votes) of approval votes from the final ballot to serve his second consecutive term.

“My goal is to achieve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research to lead the post-Covid19 era,” he said in his speech at the inaugural ceremony held on Fri. Jun 12 at Baekryung Art Center, KNU Chuncheon Campus. He added, “The focus will be on building a sustainable foundation through branding the unique KNU identity.

He continued, “We are now faced with a transition stage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coming 4 years, my efforts will be made to respond against the university extinction crisis and put a system in place for KNU to go a step further.” He also expressed his determination by saying, “I promise to provide support in opening an era of 600 billion KRW finance for the university so that every member can enjoy the flagship university’s top-class benefits and make their dreams come true.”

President Kim received a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and doctorate from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as been a professor of the Division of Mechanical Biomedical Engineering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ince 1993. He has filled various posts including KNU’s Planning Department Director, Medical Device Research Director, the 24th Chairperson of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KNU’s 11th President.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resident Kim put forward a slogan “Time for System! Towards Cooperative Growth through

Inclusive Governance’ and his key electoral commitments included: 1) introduction of decentralized vice president system; 2) innovative regional platform establishment based on local government-university cooperation; 3) coordinated response against the university extinction crisi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4) growth into the world’s top 500 university as a global research-centered university.

In addition to the above, he also committed to: 5) lea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pecialization of each campus; 6) establish a Universal Design Campus; 7) establish a hyper-connected platform to be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8) establish the ‘One KNU System;’ 9) establish an alliance between flagship universities and regional universities; and, 10) newly finance 200 billion KRW a year.

수소산업 추진 산학협력 거점 ‘그린에너지연구소’ 준공

The Green Energy Research Lab, a stronghold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s ready to drive the hydrogen industry



강원대학교는 4월 7일 삼척캠퍼스에서 ‘그린에너지연구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린에너지연구소는 지난 2016년 6월 착공해 총 사업비 178억4,000

만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10층, 연면적 9,927.3㎡ 규모로 ▲산학협력기업실 ▲국제회의장(205석) ▲계단강의실(91석) ▲이러닝 스튜디오 ▲스카이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고 있다.

그린에너지연구소 내에는 ‘강원대-KIST 극저온 공동 연구센터’ 및 ‘수소산업연구소’ 등을 비롯해 에너지산업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강원도가 주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강원대는 삼척캠퍼스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연구추진단’을 구성해, 미래 수소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연구·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연구소는 에너지 분야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은 물론,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복지공간으로도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KNU held an opening ceremony for the Green Energy Research Lab at Samcheok Campus on Tue. April 7.

Construction for the Green Energy Research Lab started in June 2016 and a total of 17.84 billion KRW was invested for the project. The Lab has 10 floors above ground with a gross area of 9,927.3㎡ which is equipped with an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offic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205 seats), a theater lecture room (91 seats), an e-learning studio, the Sky Cafeteria and more.

Tenants of the Green Energy Research Lab will be companies in the energy industry including the KNU-KIST Cryogenic Co-Research Center and the Hydrogen Industry Research Center. The Lab is anticipated to play a key role in Gangwon-do’s main project of creating an hydrogen-based energy base city.

For this, KNU has organized the Hydrogen Industry Research Division with Samcheok Campus at the center which is engaged in various research and planning projects in the areas of future hydrogen business and clean energy. The Green Energy Research Lab will be available to be widely used as a space of culture and welfare for university members and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o being used as an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y for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n the energy field.

Korea NU10

Introduction to Korea NU10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OI(2012, 2015, 2017)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송석언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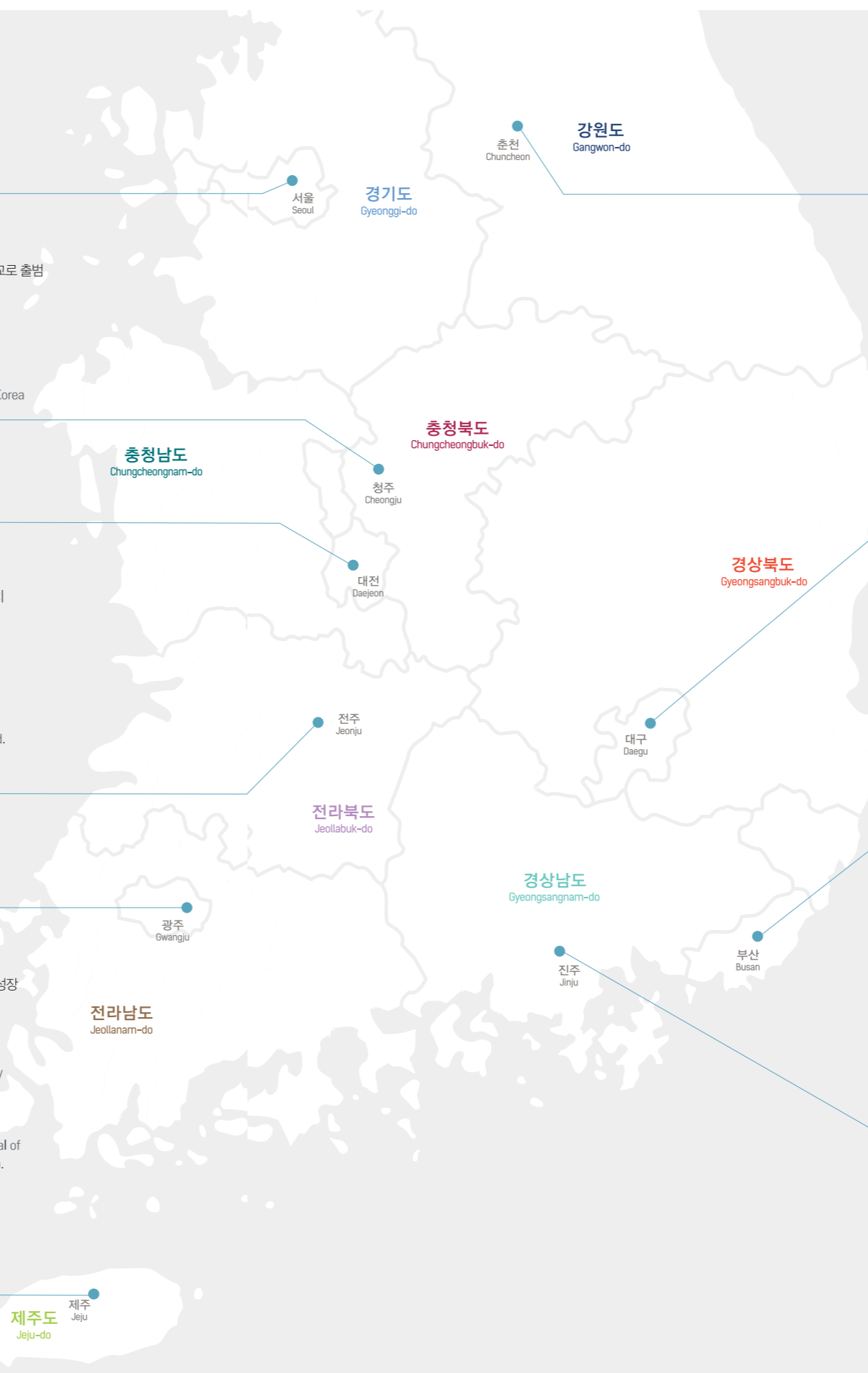
총장 이진숙 President Jin-Sook Le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병석 President Jeong Byungseo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 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어젠다 2021 수립, 미래형 창의 융합교육 선도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CNU recently promulgated and announced 'Agenda 2021' with the goal of leading innovative convergence with a focus on creativity in education.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현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상동 President Kim, Sang-D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금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瞻星人)'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7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瞻星人),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7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차정인 President Cha, Jeong I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경상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권순기 President Soon Ki Kwon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 1948년 경남 도립 진주농과대학 개교, 1972년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식물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중국 상하이자오통대학 발표 '세계대학 학술순위' 국내 11위(2018)
- Founded in 1948 as Jinju Agricultural College, it was accredited as a national university and renamed a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1972
- GNU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tier universities in three academic fields in Korea such as life science, aerospace and mechanical systems, and nano and advanced materials
- According to the 2018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GNU was ranked within the 11 top universities in Korea